

0901(목) 에스겔 25-28장 이웃의 불행에 대하여

25-28장은 열방에 대한 심판 예언입니다.

이들은 오래전부터 이스라엘과 적대관계에 있었으며,
이웃 나라, 유다의 멸망을 기뻐하며 조소했습니다.

암몬은 동맹관계에 있었음에도 유다를 돕지 않았습니다.

바벨론이 유다를 쳐 성전과 땅을 진멸하고 포로들을 압송할 때,
손뼉을 치고 추임새를 넣으며 좋아했습니다(21:18-27, 25:3,6).
모압은 <하나님 백성이라더니 별 것 없네>라고 조롱하면서,
하나님과 언약 백성 간의 특별함을 부정했습니다(25:8).

에돔은 유다의 멸망을 돕기까지 했습니다*.

바벨론의 편에 서서 약탈하며 자기 복수의 기회로 삼았습니다.

블레셋 역시도 예로부터의 감정으로 미워하며(25:15)

멸시의 마음으로 원수 갚기에 동참했습니다.

* 25:12, 35:5, 시137:7, 오바다 참고

두로도 유다의 멸망을 기뻐했습니다(26:2, 28:21, 시돈).

약삭빠르게도, 무역으로 얻게 될 이익을 재빨리 켜했습니다.

두로는 지혜롭고 능력 있어 번영한 줄로 착각했습니다(27:3, 28:2-5).

그 오만한 자기 신화는 곧 깨어질 것입니다(26장, 27:26-36, 28:7-10).

지금은 진멸과 정화의 때지만 곧 회복이 올 것입니다(28:25-26).

하나님은 이웃의 불행을 대하는 각자의 태도에 보응하십니다.

하나님과 그분의 일에 함부로 입을 열어 조롱하는 자,

신의를 버리고 기회를 잡아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자,

스스로 불의의 도구가 된 자들을 벌하실 것입니다.

(25:4-5, 7, 10, 13-14, 16-17, 26, 28:15-19, 20-24)

나는 이웃의 불행에 어떤 태도로 반응합니까?

- ① 함부로 입을 열어 평가하며 단정 짓지 않습니까?
- ② 나의 이익을 켜하며 신의를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에스겔 25-28장